

주 4일 근무제 도입,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

조성일 수석연구원, 전략컨설팅실 (sizif@posri.re.kr)

Summary

-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
 - 법정 근로시간은 1953년 주 6일 근무제(주 48시간)가 제정된 이후 점차 줄어들다가 '04.7월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
 - '23년 6월, 삼성전자의 주 4일 근무제 선언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
- 해외에서 진행된 주 4일 근무제 관련 실험은 대체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
 - '15~'19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진행된 실험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가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
 - '22년 영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도 이전의 선행 연구와 대체로 일치
- 주 4일 근무제의 성공요인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
 - 제도 도입의 장애요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
 - 줄어든 시간 분량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

1.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

- '53년 5월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제(주 48시간)가 제정된 이후 36년이 지난 '89년 주 44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4시간 단축
- 이후 '03년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다시 4시간 단축되었으며, '04.7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
 - 놀토(노는 토요일) 실시 등 점진적인 확산 노력으로 '12년에 들어서 실질적인 주 5일 근무제가 정착
 - 미국 포드 자동차는 이미 1920년대 당시 규범이었던 주 6일 근무제를 주 5일 근무제로 전환
- 삼성전자의 주 4일 근무제 선언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
 - 삼성전자는 지난 6.23.부터 '월 1회 주 4일 근무제' 시행을 선언(교대근무 생산직은 예외)
 - 디바이스경험(DX)부문은 '디벨롭먼트데이', 반도체(DS)부문은 '패밀리데이'로 호칭
 - 당월 필수 근무 시간을 채우면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됨
 - 엄밀히 말해 '금요 휴무제'는 앞선 4일(월~목) 동안 2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쉬는 방식으로, 주 40시간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금요일 하루를 쉴 수 있는 방식임
 - SK하이닉스는 '22.3월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'해피 프라이데이'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
 - SK(주), SK텔레콤 등 SK그룹의 다른 주요 계열사들도 부분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
 - SK 또한 삼성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, 다른 날에 금요일 8시간 근무를 분산하여 수행하고 금요일을 휴무로 적용하는 방식임
 - 카카오게임즈, 토스(비바리퍼블리카), 우아한형제들 등 정보기술(IT) 기반 업계는 부분적으로 주 4일제나 주 4.5일제를 채택한 기업들이 다수

2. 주 4일 근무제 관련 실험은 대체로 긍정적 결과를 도출

- '15~'19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가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
 - 영국의 싱크 탱크인 오토노미(Autonomy)가 회사원, 유치원 교사, 사회복지사, 병원 종사자 등 다양한 산업과 유형의 근로자 2,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실시
 - 조사 결과는 스트레스, 번아웃에서 건강, 워라밸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웰빙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값이 크게 상승했고, 생산성은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개선됨
 - 참여 근로자들은 단축된 시간으로 운동과 사교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대답
- '22.6월, 영국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6개월간의 대대적인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올 2월에 발표
 - 영국 연구기관 '오토노미', 비영리단체 '포데이 워크 글로벌(4 Day Week Global)',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미국 보스턴 대학교(Boston College)가 공동 기획
 - 피시 앤 칩스와 같은 소규모 레스토랑부터 채리티 은행 등 다양한 규모의 61개 기업들과 2,9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참여
 - 이 실험은 '100-80-100 모델'을 확인하는 작업으로, 임금은 100% 유지하고 근무시간은 80%로 축소하면서 생산성과 능률을 100%로 지속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적
 - 연구 결과는 이전의 아이슬란드 연구 등 선행 연구와 대체로 일치했으며, 연구팀은 "업무 시간을 줄이고 성과에 초점을 맞춘 근무 방식의 이점을 입증했다"고 결론
 - 참여 기업의 92%, 참여 근로자의 90%가 지속적인 주 4일제 운영을 희망
 - 참여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% 매출 증가, 이직률 57% 하락
 - 참여 근로자의 71%가 번아웃 감소 경험, 39%가 스트레스 감소 경험, 43%가 멘탈 건강 향상 경험, 54%가 부정적 감정 감소 경험을 언급
-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는 '19.8월 1달간 2,3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실험
 -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주말까지 사흘 연속 쉬도록 하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
 - 설문조사 결과, 직원의 92.1%가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

- 주 4일 근무제 시행 이후, 인당 매출은 39.9% 증가, 전기 사용량은 23.1% 감소, 서류 출력 및 복사 횟수는 58.7% 감소 등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
 - 주 4일 근무를 위해 직원들은 대면회의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고, 원격회의 횟수를 늘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
- **반면, 주 4일 근무제가 실패한 실험들도 존재**
- 스페인 통신회사인 텔레포니카(Telefonica)는 '21.10월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
 - 가장 큰 실패 원인은 희망자의 임금을 15% 삭감한다는 규정이 지적됨
 - 해당 조건의 영향으로 지원율은 0.75%로 매우 저조했음(직원 2만여 명 중 단 150여 명만이 주 4일 근무를 지원)
 - 프랑스는 '98년에 근무시간을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, 초과근무는 연간 13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도입 실험에 실패
 - 실패 원인은 기업의 생산성 확대라는 목적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'98년 당시 10%에 달했던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
 - 또한, 주 4일 근무제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줄면 기업이 추가 고용을 하게 된다는 어설픈 가정에서 출발
 - 당시 프랑스 직장인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39.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지 못했고, 실업률 또한 개선되지 않았으며 시간제 계약직이 늘어남

3. 주 4일 근무제의 성공요인은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

- **주 4일 근무제는 시간 단축이 아닌 효율성 향상이 성공요인으로 작용**
 - 스페인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주 4일 근무제를 임금 삭감과 함께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
- **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**
 - '17년 KDI(Korea Development Institute, 한국개발연구원) 조사에 의하면, 근로시간단축정책(주 40시간 근무제) 시행 이후,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이 1.5% 상승

- 주 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,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
 - 당시 많은 기업들이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손실을 업무 효율성으로 복구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주 5일 근무제를 운영
- 결국 주 4일 근무제 성공여부는 ‘시간’이 아니라 ‘효율성’에 있음
 - 앞서 살펴본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는 회의 시간 및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성공했으며, 이러한 방식들은 기술 발전으로 한층 더 진보할 예정
 - 또한, 줄어든 시간의 분량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
 - 따라서,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출처]

- 4 day week global, '23., "A global overview of the 4 day workweek".
(https://orgpad.com/file/D7bgMksaFBToPQ4i9QE4je?token=D_logEjnNMILN07Mt4I5C6)
- 오민, '21., 「영미권 국가들의 주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」, 국회도서관.
- “주 4일제 실험 종료 6개월 후” 참여 기업 노동 시간 ‘더 줄었다’
(<https://www.itworld.co.kr/news/301357>)
- “주 4일제로 삶의 질 향상됐다”... 휴넷, 직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(<https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09921>)
-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
(<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labor/article/201903161029001#c2b>)
- 英 주 4일제 6개월 실험 결론... 기업 92% "계속 유지"
(<https://www.itworld.co.kr/news/279235>)
- 주 4일제 실험, 아이슬란드는 성공-프랑스는 실패...무엇이 달랐나 등 종합
(<https://www.asiae.co.kr/article/2022062306584753181#none>)